韓國統計의 現況과 將來—標本調査

〈討　　論〉

金　鍾　浩*

標本調査의 現在와 未來

1. 韓國統計의 需要는 絕對的增加

統計學의 歷史와 그 認識이 미천한 가운데 經濟는 急速하게 成長하였고, 社會保障에 대한 期待의 趨勢는 急增하였으며 또한 産業社會로 急變하는 이 時代에 우리는 많은 情報에 直面하고 있다.

이렇게 多樣하게 變해가는 過程에서 洪水같이 쏟아져 나오는 情報를 時時刻刻으로 整理하고 處理하여 나가야 하는 것이 또한 우리가 하여야할 課題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巨視的으로 展望할때에 모든 分野에 많은 統計가 作成되지 않아 不便한바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勿論 朴弘來교수가 調査 發表한 바와 같이 245種의 統計가 作成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여러分野의 統計가 不足한 實情에 있음을 우리는 直視해야한다.

統計는 社會政策實施 이전에 必要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韓國과 같이 開發하여야 할 部門이 數多한 立場에서는 많은 統計需要가 絕對的으로 要請되는것은 쉽게 豫見할수 있는 것이다.

統計作成의 우선순위는 政策變數에 從屬됨으로 政策變數의 重要度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決定되어져야 한다고 볼수 있다.

2. 모든 統計調査는 標本調査로 代替

主題發表者는 統計調査를 全數調査, 標本調査, 行政報告調査와 같이 3개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行政報告調査는 全數調査라 볼수 있으므로 統計調査를 全數調査와 標本調査로 大別하고 싶다.

그런데 韓國에서 作成되는 245種의 統計는 行政報告統計가 거의를 찾이한다고 볼수 있으므로 全數調査에 의한 統計이다. 그러므로 韓國의 모든 統計는 아직까지 全數調査에 의한 統計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標本調査에 대한 認識이 不足하기 때문이다. 1960年度 前後에 "주한통계고문단"이 정부에 건의한것도 모든 統計調査를 標本調査로 代替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후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標本調査에 대한 理解가 不足한 것은 다른것과 比較할때 너무나 低速임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 東國大 統計學科

하루빨리 여러가지 利點을 가지고 있는 標本調査로 모든 調査가 代替되어야 한다고 본다.

3. 信賴性있는 統計作成의 必要

韓國의 統計는 作成者도 利用者도 아니 믿으려 한다. 서로가 믿지 않으려 하며 어떤이는 統計를 마술이라고도 한다. 빨리 信賴性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統計가 作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統計는 거짓일수 없다. 그런데 왜 韓國統計는 거짓統計로 잘 알려져 있는 것일까? 그것은 첫째 韓國統計가 官主導形의 統計로서 政策變數에 從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둘째 統計作成의 諸過程에 落後性이 있기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2가지 큰 理由에 의하여 韓國統計가 信賴性이 없다고 볼수 있다면 信賴性있는 統計를 作成하기 위하여는 官主導形의 統計에서 獨立된 統計가 作成되도록 기구의 구성이 먼저 필요 하고 統計專門人이 많이 양성되어 統計作成에 直接 관여하여 좋은 統計를 作成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時間의 變化속에 集團現象의 正確하고, 迅速하고, 經濟的인 統計를 作成해야하는 것이 오늘날 産業社會에서 統計人들이 해내야 할일들인 것이다. 보다 良質의 統計를 보다 빨리 統計를 統計人들이 만들어 내야 하는 것이다.